

아침 8시반에 일어나 밥을 간단히 챙겨먹고 10시에 현대아울렛에 출근했다 며칠 간 날이 맑지 않아 손님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밝은 날씨인지라 생각보다 사람이 많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손님이 밀어 닥치기 시작하여 우리는 손발이 바빴다 그렇게 하루종일 팔고 팔고 팔고 팔고 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 와중에 나는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곧 4학년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하루 일급 7만원 벌어서 무얼하나 정작 중요한 건 취업이고 나중에 하기 싫어도 계속 일해야할텐데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지않고 계속됐다 결국 일이 마칠 때 쯤엔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최대한 빨리 대타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고 요즘 내가 좋아하는 달리기를 삼십분 하고 침대에 드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

